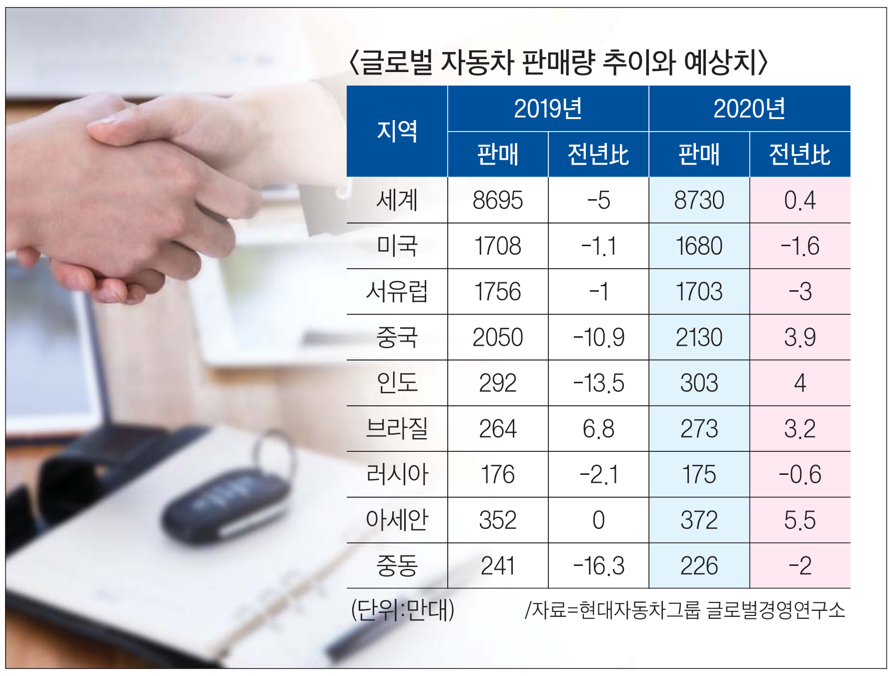
“SUV·고급·친환경차 강세… 글로벌 車시장 회복 불투명”

韓자동차기자協 시장 전망 세미나

신흥국 경제는 회복, 선진국은 후퇴 자동차 시장 올해比 0.4% 증가 추산 보호무역·유가하락 등 원인으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추이와 예상치〉

지역	2019년		2020년	
	판매	전년比	판매	전년比
세계	8695	-5	8730	0.4
미국	1708	-1.1	1680	-1.6
서유럽	1756	-1	1703	-3
중국	2050	-10.9	2130	3.9
인도	292	-13.5	303	4
브라질	264	6.8	273	3.2
러시아	176	-2.1	175	-0.6
아세안	352	0	372	5.5
중동	241	-16.3	226	-2

(단위:만대) /자료=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올해에도 정체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 투자가 크게 확대하는 가운데, 판매 전략 고민도 더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최근 서울 양재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2020년 글로벌 자동차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현대차그룹의 이보성 글로벌경영연구소장은 올해 세계 경제가 3%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국 경제가 회복 초기로 돌아서는 반면, 선진국은 후퇴하는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자동차 시장 규모 역시 올해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신흥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반면 미국과 서유럽 시장이 부진한 탓이다. 지난해 5%나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모처럼 반등이지만, 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어둡다는 얘기다. 보호무역 및 미중무역분쟁과 유가 하락이 원인으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서유럽이 -3%로 가장 하락폭이 컸다.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출가스 규제강화와 제조사 판매물량 조정 등 때문이다. 중동도 소비력이 줄면서 판매량이 2%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도 -1.6% 감소를 추정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1.1%)에 이은 2년 연속 하락세다. 판매대수로는 1700만대선이 무너지게 됐다. 무역갈등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와 함께, 신차 가격 부담으로 일부가 중고차시장으로 넘어간 영향이다. 러시아도 정부 지원 축소와 구매력 약화 등으로 -0.6%가 예견됐다.

그나마 신흥 시장은 대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동남아시아를 의미하는 아세안 시장이 5.5%나 확대되고, 인도도 경기 회복으로 지난해(-13.5%) 큰폭의 불황을 딛고 다시 4%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3.9%)과 브라질(3.2%)도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차종별로는 SUV 인기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판매 비중이 36.9%로, 판매대수도 2.8% 증가한 1056만대를 내다봤다. 지역별로도 SUV 선호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고급차 성장도 세계 트렌드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해 1027만대에서 올해 1056만대로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됐다. 중국 등 신흥국가 구매력이 높아진데다가, SUV를 중심으로 고급차 라인업이 크게 확대한 영향이다.

특히 전기자동차 시장은 연대 최대치인 29.3%나 성장할 전망이다. 연간 판매량은 555만대다. 중국이 내년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앞두고 판매량을 크게 늘리며, 유럽도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전동차 시장 성장이 확실하게 점쳐진다.

이 소장은 시장 회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전세계 자동차 업계가 시장 침체와 동시에 미래차 투자 압박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하락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다며, 전동차와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 고민도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업계가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로 돌아서는 추세라며, 소비자에 적정한 가격과 수익성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 ICT+AI ‘패밀리 허브’ 냉장고 공개

맞춤형 식단·레시피 제안 기능 추가

2020년형 패밀리 허브.냉장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1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에서 5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패밀리허브’ 냉장고 신제품을 공개한다.

삼성 냉장고 패밀리허브는 2016년 업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제품이다. 매년 혁신 기능을 추가하며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신제품은 한 단계 진화한 인공지능 ‘푸드 AI’를 적용했다. ▲맞춤형 식단과 레시피 제공 ▲내부 식재료 자동 인식 ▲더 간편해진 식료품 온라인 주문 등이 가능하다..

맞춤형 식단과 레시피를 제안하기 위해 ‘푸드 서비스 관리’와 ‘식단 플래너’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구성원들이 사전에 등록한 선호 음식을 기반으로 자주 활용한 식재료가 무엇인지 분석해 각자의 식성에 맞는 맞춤형 식단과 레시피를 추천해 주기도 한다.

내부를 확인하는 ‘뷰인사이드’ 기능은 더 업그레이드했다. 단순히 내부 식재료 확인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냉장고가 보관된 식재료를 스스로 인식해 새로 추가하거나 남은 식재료 정보를 ‘푸드 리스트’에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 보관한 재료로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도 제공한다.

필요한 물품을 ‘쇼핑 리스트’로 보낼 수 있으며, 패밀리허브에서 온라인 주문까지 가능하다. 이마트를 통해 주문 가능하고, 추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삼성전자, 8K 협회서 QLED 전 제품 ‘8K 인증’

해상도·압축방식 등 다양한 기준 포함

8K 인증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QLED 8K 제품 전 제품에 8K 협회 ‘8K 인증’을 획득했다고 1월 1일 밝혔다.

8K 인증은 ▲해상도 7680x4320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 600니트 이상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HDMI 2.1 적용 ▲압축 방식 HEVC 확보 등 8K 디스플레이와 콘텐츠에 관련된 다양한 인증 기준을 포함한다.

8K 협회는 그동안 8K 생태계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회원사 확보에 주력해왔다. TV 제조사뿐 아니라 패널 제조사, 칩셋 제조사, 콘텐츠 제작사, 스트리밍 업체, 장비 업체 등 다양한 분야 22개 업체가 참가했다.

8K협회는 지난 9월 8K 인증 기준을 발표했으며, 8K 시장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8K 경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8K 인증 기기 확대, 고품질 비디오 콘텐츠 시장 확보, 업계 성장을 위한 8K 기술 로드맵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저유황 선박유’ 정유업계 수익성 핵심요소로

키워드로 보는 산업이슈

〈1〉 IMO2020

IMO 환경규제로 정제마진 상승 기대 고도화 설비 갖추고 저유황 수요 대비

SK에너지가 IMO2020에 따른 저유황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약 1조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VRDS(감압잔사유탈황설비) 공사 현장. /뉴시스

올해 IMO(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시작되며 해운사를 비롯해 조선·정유업계에서도 그 동향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IMO2020’이란 174개국을 회원으로 보유한 국제해사기구(IMO)가 전세계 선박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규제다.

이에 따라 선박을 보유한 선주들은 IMO2020의 규제에 대응해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선박에 설치하거나 엔진 자체를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LNG 추진선’으로 교체 혹은 선박에 사용하는 기름을 저황유, 즉 ‘경유’로 바꾸는 것이다.

이번 환경규제는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조선·정유업계의 관심도 받고 있다. 해당 환경 규제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신규 발주의 수혜를, 정유사는 저가의 벙커 대신 고가의 경유를 더 판매하게 되는 만큼 정제마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유업계의 경우, 지난해 탈석유 흐름과 함께 전세계적 공급과잉·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둔화 등 각종 대외 변수가 겹쳐 정제마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IMO2020 시행에 따른 정제마진의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유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저유황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고도화설비 등을 갖춰, 올해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의 정유사업 자회사 SK에너지는 원유에서 경질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인 ‘잔사유’에 수소를 첨가해 탈황 반응을 일으켜 저황유를 생산하는 ‘VRDS(감압 잔사유 탈황설비)’를 3~4월 상업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쓰오일은 이미 복합석유화학시설인 ‘RUC(잔사유 고도화 설비)’와 ‘ODC(올레핀 하류 시설)’을 통해 저황유와 고부가가치의 화학제품인 폴리프로필렌(PP)·산화프로필렌(PO) 생산에 나섰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G전자, 냉장고에 한층 더 진화된 AI 적용

CES서 ‘LG 인스타뷰 씽큐’ 공개

LG전자 냉장고가 더 똑똑해진다.

LG전자는 1월 7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에서 ‘LG 인스타뷰 씽큐’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LG 인스타뷰 씽큐는 ▲냉장고 내부 카메라 ▲전면 투명 디스플레이 ▲노크온 기능을 적용했다. 사용자가 문을 열지 않고도 냉장고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고, 문을 여닫는 횟수도 줄여준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한층 더 진화한 인공지능(AI)을 적용했다. 내부 식재료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남아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방법을 추천하고, 식재료가 떨어지면 주문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도 한다.

도어디스플레이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없이도 무선인터넷(Wi-Fi)을 이용해 레시피를 검색하고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프로액티브 서비스도 제공한다. 제품 설치부터 사용, 관리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상태로 제품을 관리해주고, 작동상태를 분석해 예상되는 고장을 사전 감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재웅 기자